

국민 10명중 7명 “고용상황 악화되고 월급도 안 오를 것”

일자리 전망 가장 밝은 업종은 반도체...가장 어두운 업종은 숙박·음식점

“코로나가 앓아간 일자리, 기업규제완화·고용시장 유연화로 창출해야”

국민들이 올해도 고용 상황이 나빠지고 월급마저 오르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 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전망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7.3%는 올해 고용 상황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악화될 것이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응답자의 경우 올해 고용 상황이 ‘매우 악화 될 것’이란 전망이 과반(53.2%)이었고 ‘매우 개선될 것’이란 응답은 제로(0%)로 나타나, 청년층이 가장 암울하게 내다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자리 전망 최고는 반도체, 최악은 숙박·음식점

향후 가장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반도체(21.4%)였다.

바이오 등 신사업(20.6%)이 바로 뒤를 이어 신사업이 가져다 줄 고용 효과에 대한 기대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숙박·음식점업(22.5%)으로 가장 높았으며, 기계·선박·철강(17.4%), 건설(14.5%)이 그 뒤를 이었다.

조만간 일반 국민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지만 대면서비스업에 대한 고용 악화 우려는 여전히 큰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쓰아올린 고용 악화, 해결책은 기업규제 완화

고용상황이 악화될 주된 원인은 코

로나19 지속(45.3%)을 첫 번째로 꼽았으며, 국회·정부의 기업규제 강화(26.3%), 정부의 친노정책(10.7%), 기업경영실적 부진(10.5%), 신성장 동력산업 부재(7.2%) 순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고용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과제로는 기업규제완화(24.9%)를 첫 번째로 지목했으며, 근로형태 다양화 등 고용시장 유연화(21.9%)가 두 번째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20대의 경우 기업규제완화(25.0%)와 고용증가 기업 인센티브 확대(21.2%)를 꼽아 10명 중 약 5명은 기업 활성화 정책을 지지했으며, 40대는 다른 연령에 비해 신산업육성지원(21.8%)을 중요한 과제로 꼽은 것이 특징이다.

60대는 기업규제완화(27.3%)에 이어 공공일자리확대(19.5%) 비중이 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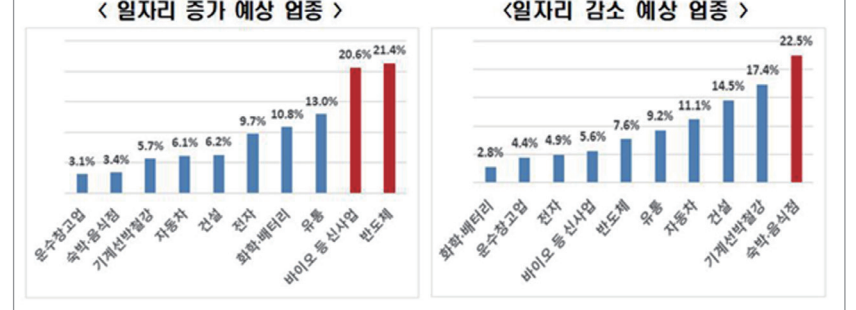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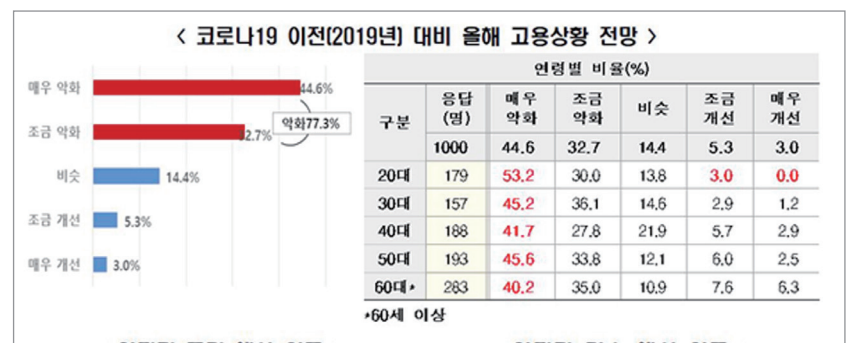
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전망만큼 월급에 대한 전망도 암울했다. 10명 중 약 7명(68.9%)은 물가 대비 월급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 응답했다.

향후 소득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질문에는 ▲주식, 부동산 등 재테크(32.9%) ▲업무역량강화 및 승진(14.9%), ▲창업(9.1%) ▲이직(7.8%) 순으로 응답했고 ▲기타 응답이 35.3%였다.

부동산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됐지만 여전히 가장 유망한 재테크 수단으로는 부동산(30.1%)이 꼽혔으며, 주식(28.4%), 기타(16.6%), 금·구리 등 실물자산(8.3%), 예·적금(6.8%), 암호화폐(6.1%), 외화(3.7%)가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 성별·연령을 불문하고 부동산과 주식을 가장 유망한 재테크 수단으로 지목했다.

남성은 부동산(30.9%)을 여성은 주식(32.3%)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33.4%)·50대(30.4%)·60대(31.1%)는 부동산, 20대(40.0%)·40대(28.9%)는



주식을 가장 좋은 재테크 수단으로 꼽았다.

또한 20대에서 주식과 부동산에 이어 최근 투자열풍이 불고 있는 암호화폐(9.5%)를 지목한 것도 특징이다.

주관호 환경련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완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고용상황을 여전히 부정적

로 전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의 성장활력이 많이 약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국민들의 기대를 반영해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고 기득권의 진입장벽을 낮춘 고용시장 조정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정기자



‘달콤한 수박 드세요’ 22일 서울 홍플러스 강서점에서 모델이 ‘2021년 봄 수박’을 선보이고 있다. 홍플러스는 경남 함안군 산지에서 출하한 올해 첫 ‘봄 수박’ 판매를 시작했다.

“카페 안가도 돼”...‘맥심 카누 시그니처’로 간편하게

저수율 추출로 카페 아메리카노 깊은 맛과 향 담아



‘홈카페’ 트렌드는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다. 완벽한 커피 한 잔의 경험을 추구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홈카페 트렌드는 한층 고급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발맞춰 커피업계는 다양한 품미의 스페셜티 커피를 선보이고 있다. 동서식품 프리미엄 인스턴트 원두커피 ‘맥심 카누 시그니처’가 대표적이다. 집에서 간편하게 커피전문점 아메리카노를 즐길 수 있다.

카누 시그니처는 동서식품의 50년 커피 제조 노하우를 집약, 커피 아메

리카노를 구현했다. 커피 추출액을 열려 수분을 제거하는 향보존동결공법(아이스버그)을 적용해 신선한 원두의 풍부한 아로마를 지켜냈다. 일정량의 원두에서 추출하는 커피 양을 줄인 저수율 추출공법으로 원두 본연의 맛과 향을 살렸다.

‘카누 시그니처 미니’ 2종은 용량을 0.9g으로 줄여 고급스러운 품미를 보다 작은 컵으로도 즐길 수 있다. 소비자가 작은 컵으로 신선한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한국인 음용 습관에 가장 적합한 용량으로 연

제 어디서나 한 번에 마시기 좋다. 패키지는 상단을 게이بل 탭 디자인으로 바꿨다.

카누 시그니처 2종도 리뉴얼했다. 기존 카누 시그니처 양이 다소 많다는 소비자 의견을 반영했다. 용량을 2.1g에서 1.8g으로 14% 줄이고, 가격도 14% 낮췄다. 합리적인 가격에 카페 아메리카노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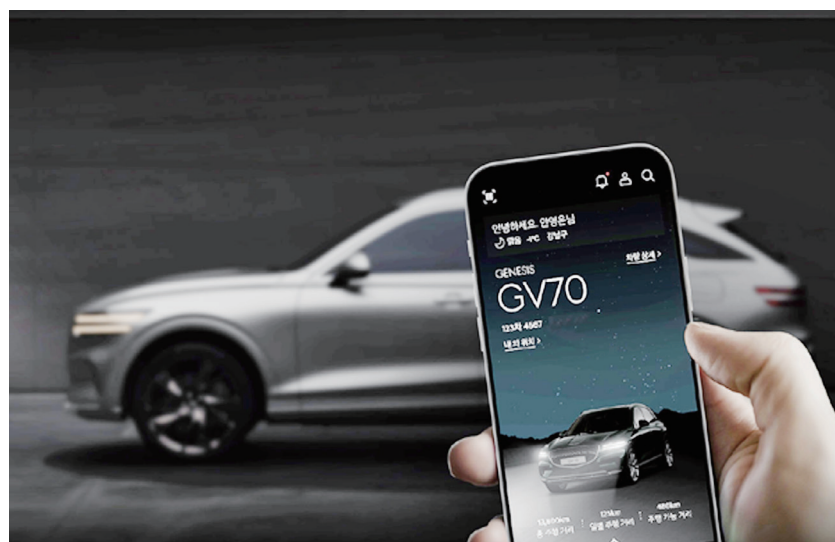
‘카누 시그니처 다크·미디엄 로스트’ 2종으로 구성했다. 개인이 선호하는 커피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다크 로스트는 풍부한 산미가 특징인 케냐 원두와 묵직한 바디감이 매력적인 과테말라 원두를 블렌딩했다. 마치 한 잔의 와인처럼 깊은 산미와 초콜릿처럼 짙은 향을 느낄 수 있다.

미디엄 로스트는 케냐, 과테말라, 브라질, 에티오피아 등 4가지 원두를 최적의 비율로 블렌딩했다. 에티오피아 원두 특유의 향긋한 꽃향기를 살려 풍성한 커피 향을 즐길 수 있다.

서선욱기자

제네시스, 개인화 모바일 서비스앱 ‘마이 제네시스’ 출시

내달 30일까지 론칭 이벤트...제주 해비치 호텔 숙박권 등 상품



제네시스가 차량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22일 개인화 모바일 서비스 앱 ‘마이 제네시스(MY GENESIS)’를 출시했다.

‘마이 제네시스’ 앱은 스마트한 차량 관리를 위한 맞춤 분석 데이터는 물론 차량 관련 서비스 예약 기능, 멤버십 포인트를 활용한 쇼핑 서비스,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콘텐츠 등 종합적인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개인별 사용자 경험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 운전을 위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며, 차계부 및 소모품 교환 시기 정보, 1대1 버틀러 서비스, 고객

의 위치와 날씨, 시간 등 환경에 따라 변하는 홈 화면 등 맞춤형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GS칼텍스·현대오일뱅크·에스오일 등 정유 3사와 데이터 연동 협약을 체결해 고객이 주유 포인트를 적립할 때마다 주유 내역이 ‘마이 제네시스’ 앱 내 차계부에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해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제네시스는 온·오프라인 연계(O2O) 플랫폼 구축을 통해 ‘마이 제네시스’ 앱만으로 차량 정비 예약, 정비 진행 현황, 정비 리포트 확인, 그리고 비대면 원격 진단까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리운전과 프리미엄 세차 서비스도 앱을 통해 한 번

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네시스 차량을 위한 다양한 차종별 전용 상품과 브랜드 굿즈를 ‘마이 제네시스’ 앱에서 멤버십 포인트로 편리하게 구매할 수도 있다.

‘마이 제네시스’ 앱은 차량 관련 서비스 뿐만 아니라 여행, 음식, 예술, 스포츠 등 다채로운 분야의 트렌디한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제공한다. 제네시스를 즐길 수 있는 노하우와 드라이빙에 필요한 유익한 팁은 물론 취향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추천해 준다.

한편, 제네시스는 ‘마이 제네시스’ 앱 론칭을 기념하기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먼저 앱 다운로드 및 사용 후기 작성 등을 인증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제주 해비치 2박 숙박권(2명) ▲에어팟 프로(10명) 등 상품을 증정하며, 추가로 ‘마이 제네시스’ 앱을 통해 ‘나만의 제네시스 만들기’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원하는 제네시스 모델을 한 달간 시승해볼 수 있는 ▲제네시스 스펙트럼 이용권(3명)도 증정한다.

제네시스 관계자는 “차량 관리 등 고객분들이 자동차를 사용할 때 들어가는 수고와 불편을 덜기 위한 차원에서 ‘마이 제네시스’ 앱을 개발하게 됐다”며 “더욱 고도화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개발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용지물’ 연료비 연동제...기름값 올라도 전기요금 할인 그대로

정부, 한전에 1분기 조정 요금 -3원 유지 통보

인상 부담 한전에서 떠안아...재무 리스크 여전

지난해 말 난항 끝에 통과된 연료비 연동제 도입이 3개월 만에 무용지물이 됐다.

국제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제때 전기요금에 반영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가격 신호를 전달하지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지만, 애초부터 최종 결정 권한은 정부에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한국전력은 22일 사이버지점 홈페이지를 통해 2분기(4~6월분) 연료비 조정 요금을 1분기에 이어 kWh당 3원 깎아준다는 내용의 ‘연료비 조정 단가 산정 내역’을 발표했다.

연료비 조정 단가는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기준연료비)와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실적연료비)를 기반으로 한다. 연료비는 관세청에서 고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유류의 무역통관 가격이 기준이다.

구체적으로 4~6월분 전기요금에 대한 기준연료비는 kWh당 289.07원

이었고, 실적연료비는 288.07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빼면 -1원의 변동연료비 값이 나오는데 여기에 변환계수(kWh당 0.1634kg)를 곱해 -0.2원의 최종 연료비 조정 단가를 산출했다.

즉, 1분기 -3원과 비교해 2.8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한 것이다. 그래도 지난해 말 요금과 비교했을 때는 kWh당 0.2원의 요금을 덜 내는 셈이다.

당초 2분기에는 연료비 조정 단가가 -5원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이 단계에는 상·하한선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2개월 연속 요금이 인하될 경우 -5원이 최대 할인 폭이 된다.

그만큼 지난해 하반기 유가가 저렴했다는 뜻이다. 정부와 한전은 이를 기반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1조원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올해 들어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현물시장에서 사들여야 하는 원료가 늘어나면서

통상 6개월의 기간을 두고 반영되는 유가와 연료비의 시차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올 초 급등한 LNG 가격 등이 그대로 연료비 조정 단계에 적용됐다.

실제로 관세청에서 산정한 올해 2월 평균 LNG 가격(세후 무역통계가격)은 623.96원으로 전월 대비 29%가량 뛰었다. 지난해 12월과 비교하면 50%가량 오른 가격이다.

그럼에도 한전은 2분기에도 할인폭을 줄이지 않기로 했다. 바뀌 말하면 kWh당 2.8원의 인상 요인은 한전이 그대로 떠안게 된다. 연료비 연동제 도입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한전의 부실한 재무 구조를 보완하기 위한 것인데 사실상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는 정부의 결정이기도 하다. 현행 체계에서 전기요금을 조정하려면 정부로부터 최종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전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분기 조정 단가 결정 시 발생한 미조정액을 활용해 2분기 조정단가를 1분기와 동일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했다. 최이슬기자